

## 용·어·사·전

## ① 무신 정권

고려 시대에 1170년부터 1270년까지 무신들이 주도한 정권. 오랫동안 문신에 비하여 차별을 받아 온 무신들이 불만을 품고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음(무신 정변, 1170년).

## ② 삼별초

원래 최씨 무신 정권의 사병이었는데, 몽골의 침략에 대항하는 정규군으로 편성되어 마지막까지 항쟁하였음.

## ③ 환도

전쟁 등 나라의 어려운 일로 정부가 한때 수도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옛 수도로 돌아옴.

## 1 몽골의 침략과 고려의 저항

(1) 몽골 침략의 배경 : 고려에 ① 무신 정권이 들어서고 지배층이 권력 다툼을 벌이는 사이 몽골이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성장하여 고려를 위협하였습니다.

(2) 고려와 몽골의 전쟁 교과서 자료 1

## 몽골의 침입

몽골 사신의 피살을 구실로 고려와 몽골의 전쟁이 시작되었음(1231년).

## 강화 천도

- 고려의 군사와 백성들이 귀주성에서 몽골군의 공격을 막아 냈음.
- 이듬해 무신 정권은 도읍을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기고 몽골과 싸울 준비를 하였음.

## 처인성 전투, 죽주성 전투

몽골군이 다시 쳐들어왔으나 고려 백성들은 처인성에서 크게 승리하였고, 세 번째 침략 때에도 죽주성에서 몽골군을 물리쳤음.

## 몽골과의 전쟁으로 인한 피해

오랜 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해지고, 초조대장경과 황룡사 구층 목탑 등의 문화재가 불타는 피해를 입었음.

## 개경으로 도읍을 옮김.

몽골과 화친을 맺고 몽골의 요구대로 도읍을 다시 개경으로 옮겼음.

## ② 삼별초의 항쟁

- 삼별초는 개경 ③ 환도를 거부하고 몽골과 계속 싸우기로 함.
- 강화도에서 진도로 근거지를 옮기고 남해안 지역에서 세력을 떨침.
-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에게 진도가 함락됨. → 제주도로 옮겨 항쟁 하였으나 결국 진압됨.



▲ 강화도는 해안의 지형이 험해서 적이 접근하기가 어렵고, 도읍인 개경에 가까워서 방어하기에 좋은 군사적 요새였습니다.

## 2 원의 간섭과 공민왕의 개혁

(1) 원의 정치 간섭 : 고려 조정이 개경으로 돌아온 후, 원은 고려의 정치에 간섭하였습니다.

- 고려에 원의 관청을 설치하였습니다.
- 고려의 왕자를 인질로 삼아 원으로 데려갔습니다.

(2) 공민왕의 개혁 정책

① 배경 : 원이 점차 쇠퇴하였습니다.

② 공민왕의 반원 개혁 정책

몽골의 풍습 금지 교과서 자료 2	당시 유행하던 몽골식 옷이나 머리모양 등의 풍습을 버림. → 고려의 전통을 되살리는 일에 앞장섬.
영토 회복	원이 빼앗은 고려의 땅인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영토를 회복하였음. →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하여 노력함.

• 원에서는 홍건적과 같은 한족의 반란이 일어났고, 황제의 권력을 두고 다툼이 심하였으며, 많은 전쟁으로 나라가 힘을 잃어 갔어요.

